

배 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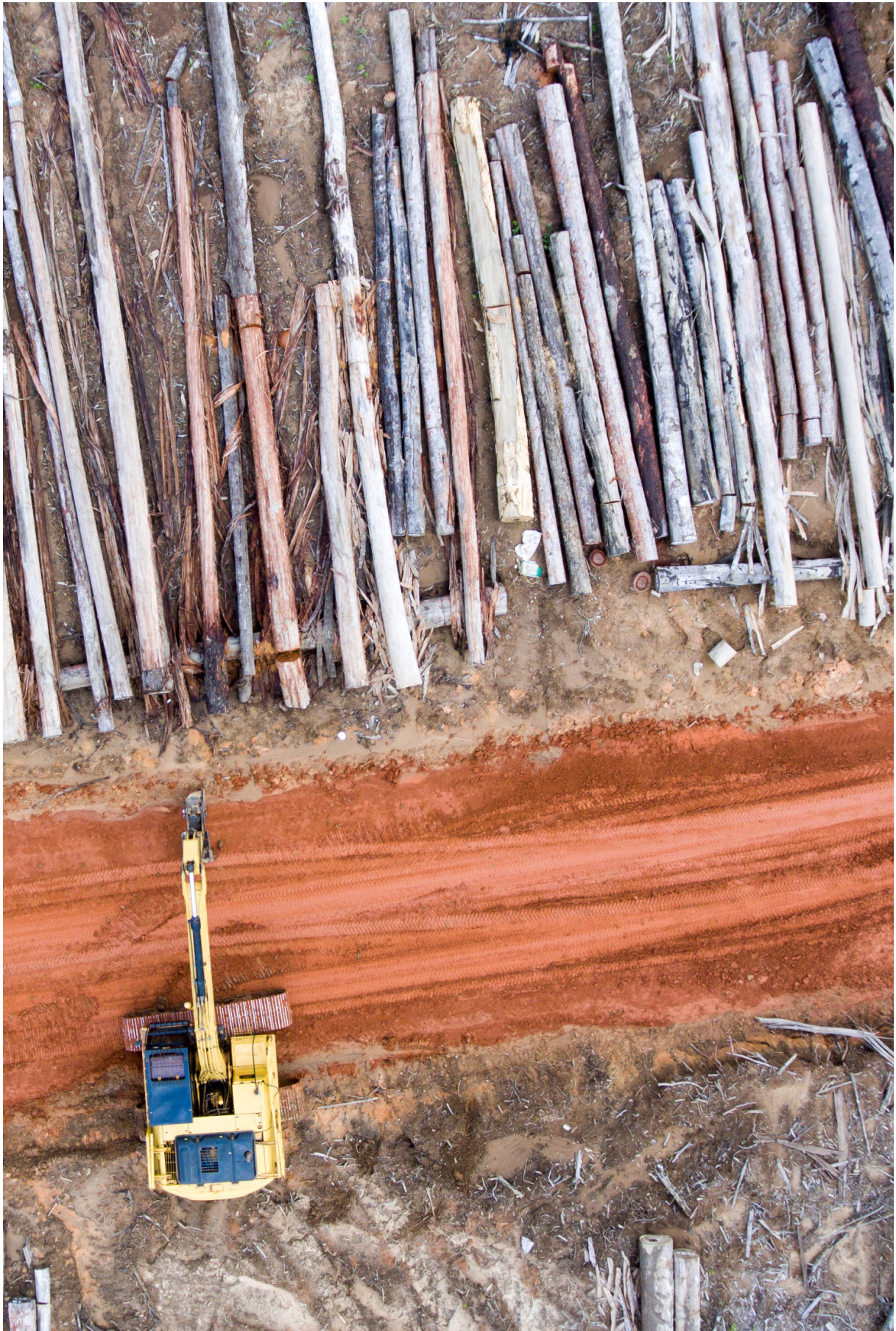
소 아도

부 오

우 노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

Deforestation from Palm Oil Plantations in Papua, PT INOCIN SELECTION ©Mighty Earth



<b>머릿말</b>	<b>4</b>
<b>I. 팜유란?</b>	<b>7</b>
<b>II. 팜유가 이야기하는 환경, 사회, 노동 이슈</b>	<b>9</b>
1. 환경 이슈	9
1) 산림 파괴	
2) 탄소 배출	
3) 생물 다양성 손실	
2. 사회이슈	12
1) 토지 분쟁	
2) 지역주민 생계 위협	
3) 물 부족과 오염	
4) 지역주민 범죄화	
3. 노동 이슈	20
1) 팜농장에서의 노동자의 역할	
2)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타겟(target) 시스템	
3) 불안정 고용 및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절감	
4) 위험한 노동환경	
5) 열악한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b>III.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투자</b>	<b>30</b>
1. 코린도	30
1) 개요	
2)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의 환경·사회 문제	
3) 현황	
2. 포스코대우	34
1) 개요	
2) PT BIA의 환경·사회문제	
3) 현황	
3. 삼성	36
1) 개요	
2)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3) 현황	
4. 기타 한국기업	38
1) 대상	
2) LG	
<b>IV. 한국의 팜유 수입 및 유통 현황</b>	<b>40</b>
<b>V. 결론</b>	<b>44</b>
<b>참고문헌</b>	<b>48</b>

## 머릿말

환경운동연합과 어필에서는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의 쎬블루(Sembuluh) 마을을 찾았습니다. 쎬블루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숲과 호수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마을의 어르신은 풍요로운 숲과 호수가 마을 사람들의 부역이었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숲에서 나는 열매들과 한 줌의 땅에서 직접 농사지는 작물, 그리고 호수에서 잡은 각종 물고기들은 가족들이 배불리 먹기에 충분했고, 마을 사람들은 호사롭지는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마을에 들어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공짜 전기와 물, 교육, 건강보험, 그리고 농장에서의 일자리를 약속을 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땅이 하나둘씩 팜유 회사의 농장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경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유와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합법적인 경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도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마을에 들어온 지 10년이 더 지난 지금, 마을 사람들은 회사가 약속했던 것들을 받기는커녕 갖고 있던 한 줌의 땅을 빼앗긴 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시는 물은 빗물을 받거나 사서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 때문인지 마을에는 전에 없던 폐 질환과 천식,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회사에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져 다른 섬 혹은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쎬블루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팜농장이 들어서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각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팜농장을 확장하는 데에 한국 기업들도 앞장서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식량자원 및 바이오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팜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쎬블루 마을의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팜농장이 확장되는 것은 팜유에 대한 수요의 증가했기 때문인데,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라면이나 과자, 화장품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원료로 팜유와 팜유 부산물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에도 팜유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어필은 이 보고서에 쎬블루 마을 사람들과 같이 팜유 때문에 숲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과 숲을 빼앗는 한국 기업들, 더 나아가 우리가 과자를 먹고, 화장품을 바르고, 차를 타는, 평범한 일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팜유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숲을 빼앗긴 사람들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라는 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해질녘, 쎬블루 마을의 호숫가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분명히 오염된 물 때문에 집에 가면 온몸이 가려워질 텐데, 아이들은 부모들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편에 안고, 오늘도 변함없이 봄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긴 숲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숲의 사람들에게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2019년 3월

정신영 대표  
공익법센터 어필

2018. 12. 2 해질녘 쉼볼루 호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환경운동연합



2019년 3월

글쓴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펴낸이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디자인 정재영 (jae0chung@gmail.com)

# 1. 팜유란?

팜 열매 단면 ©Nanang Sujana, CIFOR



팜유는 팜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에서 세제, 치약,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재의 약 절반에 함유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팜 열매는 다발(Cluster) 형태로 열리는데 이를 분리시킨 낱알을 반으로 자르면 가운데 하얀 씨앗과 그 씨앗을 둘러싼 주황색 과육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때 과육을 고온에 압착해서 얻은 기름을 팜유(CPO: Crude Palm Oil), 씨앗의 종핵에서 추출한 기름을 팜핵유(PKO: Palm Kernel Oil)라고 한다. 정제 과정을 거친 팜유와 팜핵유는 주로 식용 및 가공용으로 쓰이며 나머지 부산물은 바이오 에너지 연료 등 산업용으로 쓰인다.

팜 나무의 원산지는 서아프리카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연 강수량과 연중 온도가 높은 세계 각지 열대지역에서 팜 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팜나무는 파종 후 2~3년이 경과하면 첫 과실을 맺으며 약 25년에 걸쳐 수확이 이루어진다. 단위면적 당 생산성은 약 4,000~5,000kg/ha으로, 기타 식용유지 원료인 유채(1,000kg/ha), 해바라기(800kg/ha), 대두(375kg/ha)에 비해 현저히 높다.<sup>1</sup> 팜유는 식물성 유지이나 포화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산화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세계 팜유 소비량은 1995년 1,460만 톤<sup>2</sup>에서 2016년 6,900만 톤<sup>3</sup>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소비량이 1억 100만 톤<sup>4</sup>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량은 2016년 기준 3,2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연간 수출량은 2,700만 톤, 수출액은 186억 달러에 달했다.<sup>5</sup> 지난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팜유산업연맹(GAPKI)은 2020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팜유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 The impacts and opportunities of oil palm in Southeast Asia, CIFOR, 2008

기름야자 부분별 용도							
기름야자나무 (Oil Palm)							
과실 (Fruit)			씨앗 (Nut)				줄기(Trunk)
팜 원유 (Crude Palm Oil)	섬유질 (Fiber)	찌꺼기 (Sludge)	종핵 (Kernel)	핵박 (Kernel meal)	껍데기 (Shell)	부산물 (Empty bunch)	
-식품, -비누세제, -연료	-펄프, -제지	-비료, -사료	-식품	-비료, -사료	-활성탄, -가구용 합판	-펄프, 제지, -비료, -연료	-가구, -사료, -연료







2016. 6. 4 PT Papua Agro Lestari, 위도 -6.7619 경도 140.8079 ©Mighty Earth



## II. 팜유가 야기하는 환경, 사회, 노동 이슈

팜유 수요의 증가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팜유 생산국에서는 환경문제 및 지역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업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본 보고서는 2018년 12월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이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Seruyan)지역 셈블루(Sembuluh) 마을을 방문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과 데스크 리서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1. 환경 이슈

#### 1) 산림 파괴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없어진다<sup>6</sup>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2016년 기준 1,100만 ha(헥타르·1 ha=1만 m<sup>2</sup>)에 달하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20년까지 그 규모를 1,300만 ha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 면적(1,000만 ha) 보다 더 큰 규모의 숲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위와 같은 수치가 업계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 허가권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파괴한 숲의 면적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 2) 탄소 배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열대림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약 25%를 저장<sup>7</sup>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팜유 플랜테이션이 열대림을 파괴하고 들어선다는 것이다. 열대림 파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는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운송 수단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sup>8</sup> 이탄지(peat land)를 개간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탄지는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 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로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sup>9</sup>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탄지 보유국으로 60조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이탄지에 저장하고 있다.<sup>10</sup>

이렇듯 거대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열대림과 이탄지 파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개간

을 위한 토지정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불이 사용된다. 이는 기존의 식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글로벌 팜유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sup>11</sup> 산불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데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하였고 약 500,000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sup>12</sup> 2015년 10월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배출량(하루에 약 16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넘어서기도 했다.<sup>13</sup>

2015. 10. 14 군인과 소방관이 중부 칼리만탄 팔랑카라야 외각에 위치한 이탄습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lia Erlangga, CIFOR





### 3) 생물 다양성 손실

방대한 규모의 숲을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벌목과 산불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6년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오랑우탄 10만 마리가 사라졌다. 1960년대 목재를 얻기 위한 벌목에서 현재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열대림 파괴로 위기에 처한 동물은 오랑우탄만이 아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수마트라

코끼리의 서식지 69%가 파괴되었으며, 야생에 남아있는 수마트라 코뿔소는 불과 100마리도 되지 않는다.<sup>14</sup> 멸종 위기 종인 오랑우탄, 코끼리, 호랑이, 코뿔소를 비롯한 200여 종의 포유류와 50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그곳의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sup>15</sup>

## 2. 사회 이슈

### 1) 토지분쟁

토지를 둘러싸고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과 지역공동체가 겪는 갈등은 팜유 생산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지역 공동체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선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가 적용되는 땅이 정부와 기업에 넘어갔다는 데 있다. 2013년, 인도네시아 토지청은 팜유 회사와 지역사회 간에 3,000건이 넘는 갈등이 발생 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16</sup>

“이곳은 관습법에 따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서 깊은 땅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작물을 심고, 경작하고, 수확하는 장소였지요. 그렇지만 PT Salonok Ladang Mas와 다른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공동체의 땅을 가로채 버렸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의 정원과 이 지역의 보호 지역, 공동체의 관습상 토지가 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Pancasila)과 1945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up>17</sup>

와디안(Wardian),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셈블루 마을 주민  
©환경운동연합





### 산림 거버넌스가 낳은 토지분쟁의 씨앗

인도네시아는 선주민들의 땅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인정해 왔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1967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선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전국의 산림을 국유화하는 산림법을 제정한다. 산림법에 따라 선주민들은 수 세대에 걸쳐 살던 숲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산림 계획에서부터 사업 허가권 발급, 천연자원 관리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였다.<sup>18</sup> 수하르토 정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업 허가권을 남발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갔다. 국제투명성기구(IT)는 2004년 수하르토를 '20세기 가장 부패한 지도자'로 선정했고 그가 빼돌린 돈이 150억~35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sup>19</sup>

32년간 독재자로 군림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8년 민주화 시위로 하야한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토지와 자원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부파티(Bupati; 선출직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플랜테이션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환경·사회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도 면허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부파티들은 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에 자원 개발 권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sup>20</sup> 인도네시아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2명의 부파티를 포함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뇌물수수 및 기타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2003년 KPK가 설립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sup>21</sup> 지방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사업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법집행과 투명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토지 독점(land monopoly)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디마스(Dimas N. Hartono), 알히 중부 칼리만탄<sup>22</sup> 디렉터 ©환경운동연합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면적은  
 대략 1,500만 ha로, 이 중 70% 정도가  
 대형 투자 사업의 통제하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주로 산림사업과 팜유 플  
 랜테이션 및 광산업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존재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sup>23</sup>

① 농장사업 기본동의서 (Izin Prinsip; IP)

기업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군에 농장 사업에 대한 기본동의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 정부(사업 지역이 한 구역인 경우에는 bupati, 사업지역이 한 구역 이상일 경우에는 provincial governor)에서는 해당 지역이 토지사용 계획에 비추어 농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기본동의서를 발급을 한다.

② 농장사업 구역허가서 (location permit/ Izin Lokasi; IL)

이후에 기업은 현장조사 및 주민 협의를 실행한 후, 지방정부에 농장사업 구역허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 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 구역허가서를 발급한다. 이후에 기업은 보상과 플라즈마의 넓이 등에 관련된 내용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사업구역허가서는 국가나 개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할 권리를 구할 권리가 주어질 뿐이며, 그 자체로 토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환경영향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 시행

플랜테이션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후 위원회에서 발행되는 환경 허가 (Izin Lingkungan)를 받아야 플랜테이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경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기업이 토지를 독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땅을 빼앗음으로써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은 그 존재의 기본적 법적 권리인 HGU를 사용함으로써 더 큰 사업 허가 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HGU를 이용해 더 많은 토지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된 기업은 결국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숲과 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sup>25</sup>

④ 플랜테이션 사업허가서 (Izin Usaha Perkebunan; IUP)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증명서, 플라즈마에 대한 제안서, 지도 등과 함께 플랜테이션 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플랜테이션 사업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통해 기업은 사업구역 허가서에 따른 지역에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플랜테이션 사업허가는 사업을 운영할 권리에 불과하며, 토지를 소유할 권리는 아니다. 그렇기에 플랜테이션 사업허가서가 발행되는 지역에 선주민의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⑤ 산림 해제허가서(SK Pelepasan Kawasan Hutan)

만일 사업 지역에 숲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 해제허가 없이 숲을 개간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산림법상 범죄행위이다.

⑥ 경작허가권 발급

⑥-(1) Plantia B 의 권고

이후 기업은 플랜테이션 사업허가를 주와 군 단계에 있는 토지 사무소와, 군 단위의 산림환경부 공무원, 비정부단체, 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Plantia B라는 기구에 제출하고, Plantia B는 모든 서류를 평가한 후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 BPN)에 토지사용허가 발급에 대해 권고를 한다.

⑥-(2) 토지청 토지사용허가 발급 (Hak Guna Usaha; HGU)

국가토지청은 Plantia B의 권고를 검토하여 토지사용허가를 발급하는데, 발급되는 토지사용허가는 35년 유효하며, 이후에 2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와완(Kurniawan Sabar), 인디스<sup>24</sup>디렉터 ©환경운동연합



## 2) 지역주민 생계 위협

선조 때부터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던 숲을 빼앗긴 사람들은 생 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숲은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한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편히 쉬 안식처와 일용할 양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과 아픔을 치유하는 치료제까지. 사람들은 숲이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이 내린 선 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적용되는 대규모의 토지를 '비생산적'이라 간주하고 기업 에 넘겨버렸다.<sup>28</sup> 카사바, 코코넛, 양배추, 쌀, 천연고무 등 여러 작물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던 숲은 처참히 파괴되고 거대한 단일 작물 농장으로 바뀌었다.

2010년 4월 국제산림연구소(CIFOR)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가 운영 중인 2개의 플랜테이션 근처에 사는 노동자, 토지 소유주,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모두는 플랜 테이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임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었고, 주택 및 연료용으로 사용할 목재를 채집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숲에서 얻을 수 있던 식량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자급자족 생활을 하던 주민들은 배급받는 쌀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sup>29</sup> 정부와 기업은 팜유 플랜테이션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과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지역주민은 극소수이며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저임금과 혹독한 근무환경, 외진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탓에 오랜 기간 팜유 업계는 이주 노동력을 사용<sup>30</sup>해왔다. 이주민들로부터 노동력을 확보한 기업은 토지 소유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다. 더 이상 생계수단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은 기업에 고용을 요청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18. 12. 2 PT. Salonok Ladang Mas ©환경운동연합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팜유 플랜테이션이 나타나기 전엔 행복하게 살았어요. 경작할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목재와 여러 작물을 이용해 생계를 꾸릴 수 있었죠.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PT Salonok Ladang Mas가 마을에 왔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협의와 상의도 없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sup>27</sup>

와디안,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정부는 고용을 개방하고, 회사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죠. 예전에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은 회사에 의존한 적이 결코 없었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땅을 경작했었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5%에 불과해요.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길 바라는 걸까요? 이것은 테러보다 더한 거예요.”<sup>31</sup>

-와디안,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2019. 1. 13 셀블루 마을 주민들이 인근 팜유플랜테이션에서 배출한 오염 물질로 인해 그들의 식수원인 호수와 강이 오염되었다며 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디마스, 왈히 중부 칼리만탄



### 플라즈마의 문제

플라즈마(Plasma)는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마련된 공공 플랜테이션 제도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0 ha 이상의 지역에 플랜테이션 사업허가(IUP)를 신청하는 회사는 플랜테이션 사업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허가 지역의 최소 20%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플랜테이션 지역으로 제공해야한다.<sup>32</sup> 공공 플랜테이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초기 자금을 지역 협동조합에 제공한 후 이윤이 난 후부터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운영을 회사에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플라즈마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다.

2016. 6. 3 플랜테이션을 위해 초목을 정리하여 드러난 토양은 열대 강우에 쉽게 침식되고 강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홍수의 위험이 증가한다. 위도 -6.8083 경도 140.5699 ©Mighty Earth



“플라즈마가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한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플라즈마 운영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은 한 달에 3만 루피아(한화 약 2,000원)에 불과해요. 이 말은 하루에 고작 1,000 루피아(한화 약 70원)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돈으로는 설장 한 봉지 사기에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번영이라고 부르다고요?”<sup>33</sup>

-와디안,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 3) 물 부족과 오염

독일개발정책 연구소의 <인도네시아 팜유 경작 확대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팜유 경작은 해당 지역 수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뭄과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물을 많이 소비하는 팜 나무로 인해 인근 수자원(우물, 지하수, 하천 등)이 말라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해지는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플랜테이션을 위해 초목을 정리하여 드러난 토양은 열대 강우에 쉽게 침식되고 강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홍수의 위험이 증가한다.<sup>34</sup>

팜유 플랜테이션이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우 기업은 지역주민의 식수원이 인접한 곳에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고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제초제, 살충제 및 온갖 화학물질 폐기물들을 정화작업 없이 강과 호수에 투기한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물고기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물을 마신 이들은 심각한 병에 걸렸고, 물로 씻은 이들은 가려움을 호소했다.



2016. 11. 14. PT Inecda 농장 근처 주민의 마당에 있는 마른 우물 ©공익법센터 어필



2018. 12. 3 부르한(Burhan),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환경운동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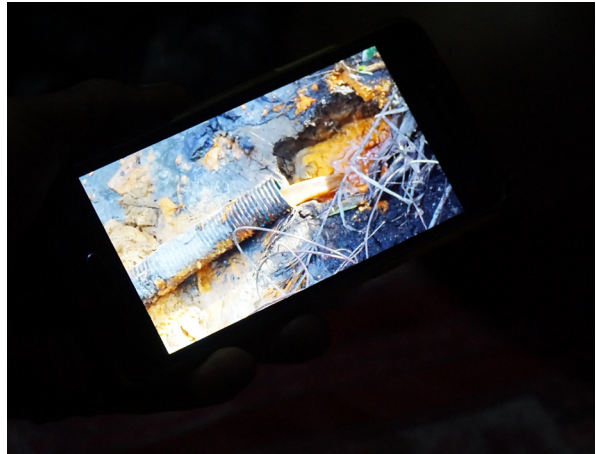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어망에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팜유 회사의 식물성 폐기물뿐이었어요. 폐기물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보니 팜 농장 폐기물이 터널에서 나와 강으로 흐르고 있었어요.”<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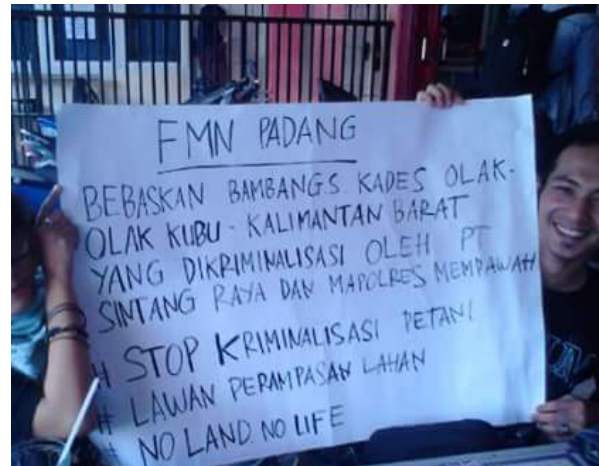
—부르한(Burhan),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한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합니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sup>36</sup>

—파푸아 지역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

2018. 12. 3 팜 농장 폐기물이 강으로 곧장 방류되는 모습 ©환경운동연합







#### 4) 지역주민 범죄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및 채굴산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업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 지역주민들을 탄압해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데, 이때 주요하게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이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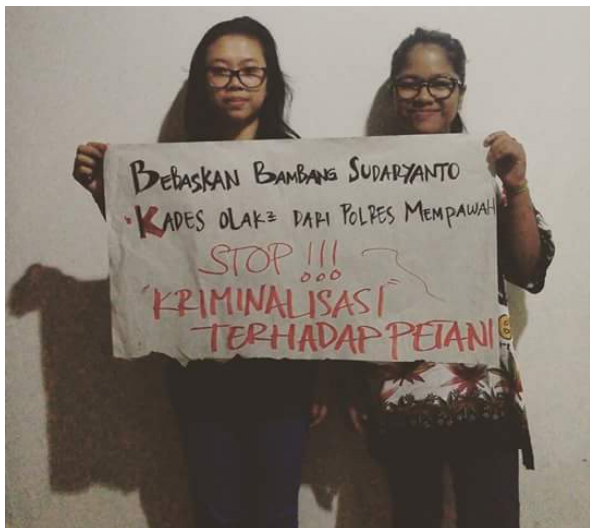
범죄화란 수사관의 주관적인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해 확실성과 정의의 측면을 배제한 채 평범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짓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로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된다.<sup>40</sup>

일부 주민들은 땅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범죄화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기도 한다. 2016년에만 134명의 농민과 활동가들이 체포 혹은 구금을 당하거나 범죄 용의자가 되며 범죄화가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sup>41</sup> 그 중에서도 서부 칼리만탄의 꾸부라야(Kubu Raya Regency) 지역의 경우, 한국 기업 '대상'의 자회사인 PT. Sintang Raya와 Olak-olak Kubu 마을 주민들과의 토지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범죄화 피해 규모가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up>42</sup>



“저는 PT Salonok Ladang Mas로부터 그들의 야자열매를 훔쳤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뒷개가 없는 텅 빈 가방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과일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제 차에는 열매를 따기 위한 어떠한 장비도 있지 않았죠. 기업에서 제가 훔쳤다고 말한 야자열매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sup>38</sup>

—와디안,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 주민



2016. 5. 서부 칼리만탄의 Olak-olak Kubu 마을에서 PT. Sintang Raya와의 토지 분쟁 과정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마을의 지도자인 Bambang Sudaryanto에게 1년 2개월 형이 선고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다 © Agra Kalimantan Barat

### 3. 노동 이슈

#### 1) 팜농장에서의 노동자의 역할

팜농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팜 열매 수확, 팜 나무 관리, 팜 열매 운반과 팜유 정제 공장 근무, 경비 등의 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팜 열매 수확과 팜 나무 관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으로 팜농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 두 가지 작업에 종사를 한다.

##### 팜 열매 수확

수확 노동자는 끝에 낫이 달린 긴 장대를 활용하여 팜 나무에 열리는 팜 열매 다발을 수확하는 일을 주로 한다. 열매가 잘 익은 경우에는 다발이 25kg 정도 무게가 나가며 25kg 정도 무게가 나가며, 하루에 수확해야 하는 팜 열매의 무게가 정해져있으며 이를 타깃(target)이라고 한다. 타깃의 양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어디에서나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근무시간 내내 일을 해도 채우기 어려운 양으로 설정되어 있다. 타깃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가 되며, 타깃보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경우에는 보너스가 지급이 된다. 수확은 남성들이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줍거나 수확한 팜 열매 다발을 운반트럭이 오는 곳까지 손수레로 나르는 것까지를 담당한다.

##### 팜 나무 관리

관리 노동자는 팜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비료 도포를 비롯하여 제초 작업, 질병 및 해충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되며, 보통 여성들이 담당한다. 관리 노동자들 역시 하루에 뿌려야 하는 비료, 제초제 및 살충제의 양(target)이 정해져있으며,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인데다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장에서는 팜 나무 관리를 담당하는 여성들을 임시노동자(casual worker)로 고용하고 있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용 중단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sup>43</sup>

##### 기타 작업

운송 담당자는 수확 노동자가 모아둔 팜 열매 다발을 트럭에 실어서 가까운 공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비는 플랜테이션 입구 및 내부에서 경비를 서며 무단 침입이나 절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한다. 공장 노동자는 주로 2교대나 3교대로 일을 하는데, 공장 내 작업은 비교적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으며 보통 고용상태도 보다 안정적이며 급여도 더 높다.<sup>44</sup>

복수마트라 델리 세르당의 PT. London Sumatra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수확 노동자 ©Nanang Sujana /RAN / OPPUK





## 2)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타깃(target) 시스템

수확 노동자와 관리 노동자들은 각각 하루에 마쳐야 하는 업무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타깃(target)이라고 하며 이 분량의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타깃으로 정해진 업무의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타깃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하거나, 가족 등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수확 노동자의 경우 회사별로 하루에 수확해야 하는 열매 다발의 무게가 850kg에서<sup>45</sup> 2톤까지<sup>46</sup>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타깃보다 많은 양을 수확한 경우에는 보너스를 지급받는다.<sup>47</sup> 그러나 타깃보다 적게 수확한 경우에는 능률급으로 (piece rate pay)로 계산을 하여 급여가 지급되는데, 타깃을 모두 달성했을 때의 일당에 대한 실제 수확한 양만큼의 일당을 비율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된다.

한편, 관리 노동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살포해야 하는 비료와 제초제, 비료 별로 무게는 다르지만 역시나 많은 양의 비료와 제초제를 살포하게 할당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부 칼리만탄의 한 플랜테이션에서는 NPK라고 하는 비료 50 kg 짜리 포대를 하루에 12개를 살포를 하고, 15kg 짜리 스프레이 통에 들어있는 제초제를 15통씩 살포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다.<sup>48</sup> 이들도 관리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능률급으로 계산을 하여 타깃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하루 일당이 지급되며,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살포를 마친 양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거나<sup>49</sup>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sup>50</sup>

### 불법 고용의 양산 - Kernet(보조) 노동자 근무 조장 및 강요

특히 수확 노동자의 경우, 높은 타깃을 채우기 위하여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을 돕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팜유 플랜테이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이며, 이들을 kernet(보조) 노동자라고 한다. Kernet 노동자들은 주로 수확 노동자의 아내나 자녀들이지만 가끔 수확 노동자가 직접 돈을 지급하고 도움을 받는 제3자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떨어진 열매를 줌, 열매 다발을 손수레에 실어서 트럭이 실어갈 수 있도록 나르고, 가지나 열매 다발 정리를 하여 수확 노동자를 돕는다.<sup>51</sup> 이러한 kernet 노동자들은 수확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등과 무관하게 극소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회사의 의무실 이용마저도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sup>53</sup>

“제 남편이 혼자 일을 한다면 일을 마치지 못할 겁니다. 타깃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일을 돈도 받지 않고 하냐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sup>52</sup>



북수마트라 델리 세르당의 PT. London Sumatra 플랜테이션에서 남편을 도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kernet 노동자  
©Nanang Sujana /RAN / OPPUK









### 아동 노동 조장 및 방임

위와 같이 회사에서 직접 아동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농장에서 아동이 kernet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 노동자가 본인의 자녀를 일을 돕게 할 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을 kernet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는 문제 외에도 교육 기회의 박탈 및 유해 물질 등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아동노동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도에 북부 수마트라와 중부 칼리만탄의 플랜테이션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10세 미만의 아동도 부모를 돕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부모를 돕기 위해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sup>54</sup> 또한 2015년도에 북부 수마트라의 팜 농장을 방문한 조사팀은 13세, 16세, 19세 아동이 하루에 20,000루피아 (1.5 USD)를 받고 kernet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sup>55</sup> 2016년도에 리아우의 팜 농장을 방문한 조사에서도 부모를 돕기 위해 중 고등학생들이 kernet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sup>56</sup>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살이 안된 아이가 일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가 플랜테이션에 데리고 옵니다. 저는 12살 짜리 아들과 9살짜리 딸이 있는데,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1시가 지나면 저를 도우러 옵니다. 일하러 가고 싶지 않은 날에는 집에 있고 기운이 있는 날은 저를 도우러 오는데, 2시부터 5시까지 떨어진 팜 열매를 줍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전기가 꺼지기 전에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고 아침부터 부모를 도우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도우러 오는데, 관리인이 아이가 아침부터 일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타킷을 채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타킷을 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겁니다."<sup>57</sup>

### 3) 불안정 고용 및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절감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팜 열매 수확과 팜 나무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와 kernet (보조)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ernet 노동자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타격을 맞추기 위하여 수확 노동자의 일을 돕는 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노동자이며, 그 외에 노동자들은 회사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는 지역별, 회사별로 다르지만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임시직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8</sup> 그중에서도 특히 관리 노동자의 경우 여성들이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네시아 법상 임시직은 한달에 21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시직은 의료보험 및 연금 등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제외가 되며, 장기근속 후에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59</sup>

#### 낮은 임금

인도네시아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팜유 플랜테이션이 위치한 대표적인 지역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높은 노동강도 및 작업의 고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플랜테이션에서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크게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다.<sup>61</sup>

이렇게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급여에서 공제를 당한다. 타격을 맞추기 위해 kernet 노동자를 사비로 고용하는 수확 노동자 중에서는 급여의 35% 정도를 kernet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sup>63</sup> 그 외에도 각종 벌칙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내역은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이 공제 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급여를 착취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sup>64</sup>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달에 최대 출근일수가 20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렇게 적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벌칙 사유 예시

경고 사유 - 구두 경고 외에 문서로 경고장을 3회 받으면 상여금이 공제가 되고, 3회 이상 경고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군으로 발령이 나가거나 해고가 될 수 있음.<sup>65</sup>

-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은 경우
- 떨어진 열매를 던지는 경우
- 떨어진 열매를 모으는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경우
- 팜 나무 잎을 적절하게 정리하지 않은 경우
- 더운 날씨에 장화를 신지 않는 경우

#### 임금 공제 사유

- 익지 않은 열매를 수확한 경우 (다발 당 2,500에서 10,000루피아까지 공제)
- 떨어진 씨앗을 줍지 않는 경우 (500 루피아<sup>66</sup>에서 5,000루피아<sup>67</sup>까지 공제)
- 익은 열매를 수확하지 않은 경우<sup>68</sup>

이 외에도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쌀의 양을 줄이기도 한다.<sup>69</sup>

"플랜테이션 회사에서 관리 노동자로 8년간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쓴 적이 없고, 주변에도 계약서를 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카드의 번호가 적혀있고 보험료도 공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카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sup>70</sup>

표 1. 고용형태 별 임금 및 사회보장 현황의 예시<sup>60</sup>

고용형태	혜택					
	임금	쌀	주거	상여	근무일	건강보험
정규직	2,400,000루피아/월	1.05kg/일	제공	있음	25-26일/월	제공
기간제	2,400,000루피아/월	1.05kg/일	제공	없음	25-26일/월	미제공
임시직	99,173루피아/ 일	없음	없음	없음	20일/월	미제공

표 2. 지역별 최저임금의 예시

지역	IDR/USD <sup>62</sup> (2018)	IDR/USD (2017)	IDR/USD (2016)
서부 칼리만탄	2,046,900/143.28	1,882,900/131.80	1,739,400/121.76
북부 수마트라	2,132,188/149.25	2,132,188/149.25	2,132,188/149.25
중부 칼리만탄	2,421,305/169.49	2,227,307/155.91	2,227,307/155.91
리아우	2,464,154/172.49	2,266,722/158.67	2,095,000/146.65

수확노동자의 벌칙사유를 공지하고 있는 안내판 ©Agra Kalimantan Barat

<b>Denda Terhadap Kesalahan Pemanen</b>			
No	Jenis Kesalahan semua Golongan	Satuan	Rupiah
1	Memotong buah mentah (M)	Janjang	10,000
2	Buah tinggal di pokok (T)	Janjang	5,000
3	Bunga Matahari (P)	Janjang	500
4	Buah tidak di angkut ke TPH	Janjang	5,000
5	Buah tidak disusun rapi di TPH yang telah ditentukan	Janjang	1,000
6	Pelepah sengkleh / Tidak mepet (S)	Pokok	1,000
7	Pelepah tidak disusun rapi/L shape diantara pokok dan tdk dipotong 2 (G)	Pokok	3,000
	Tangkai panjang dan tidak V-Cut	Janjang	1,000

**Denda Kesalahan Pengutip Brondol**

2016. 11. 리아우 주의 PT. Inecda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공익법센터 어필



## 4) 위험한 노동환경

팜유 플랜테이션에서는 넓은 농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량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제초제 중에는 라운드업 등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71</sup>

### 독성물질 파라콰트의 사용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맹독성 제초제인 파라콰트(paraquat)이다. 파라콰트를 직접 삼키거나 피부 접촉이나 냄새 흡입 등 간접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파킨슨병, 신경계 손상, 내분비계 교란 및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2</sup>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판매 금지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파라콰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제초제인 그라목손(Gramoxone)이 판매 금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콰트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73</sup>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파라콰트를 포함한 제초제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정 교육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파라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4</sup>그러나 관리 노동자들은 파라콰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많은 경우에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파라콰트를 살포하고 있다.

"라운드업과 그라목손을 제초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통에 위험하다고 써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라목손을 뿌릴 때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 그라목손을 맨손으로 다루다가 손톱이 다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sup>75</sup>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폐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야기를 해도 아프면 오지 말라고 할 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sup>76</sup>

### 안전장비 미비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관리 노동자들에게도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호복, 헬멧, 장화나 장갑 등이 지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타격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77</sup> 비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담긴 비료를 바가지를 이용하여 맨손으로 뿌리는데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

팜 나무 관리 작업 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일도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거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확 노동자는 칼로 손을 베이거나 열매가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으며,<sup>78</sup> 특히 열매의 작은 입자(파우더, serbuk)가 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확 노동자들은 타격을 채우기 위해 불편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sup>79</sup>

"헬멧이나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주지만, 보안경의 경우 플라스틱이어서 스크래치가 나고 김이 서려 노동자들이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제가 감독하는 42명의 노동자 중 보안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수확 노동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이 서리지 않고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보안경으로 자주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9년 동안 2, 3회 정도만 보안경을 교체해주었습니다."<sup>80</sup>

비료를 살포하고 있는 여성 관리 노동자 ©RAN / OPPUK



## 5) 열악한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2016. 11. 3. 리아우 주의 플랜테이션 근처에 있는 마른 우물 ©공익법센터 어필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은 자바 섬, 술라웨시 섬, 소손다 열도 등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한 이주노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내부나 근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sup>81</sup> 회사에서 좋은 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주거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주거시설 자체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팜 나무 재배 및 팜유 정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의 강이나 호수가 오염이 되고, 이로 인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용수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용수를 위한 시설이 불충분하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을 사 마시거나,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up>82</sup>

주거시설이 팜유 정제를 위한 CPO 공장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 또한 심각하다. 24시간 운영이 되는 CPO 공장에서는 하루종일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숙소 내부까지 들리는 경우도 많다.<sup>84</sup>

한편, 팜유 찌꺼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POME이라고 불리는 진흙 형태의 유기물 찌꺼기를 물 웅덩이에 두고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정화를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될 뿐 아니라,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주변에 숙소가 위치한 경우 악취에도 시달리게 된다. 또한 물웅덩이에 사람이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팻말 외에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다.<sup>85</sup>



"물은 우물을 개인적으로 파서 썼지만 지금 우물이 막힌 상태이고 먹는 물은 사서 먹지만, 씻는 물은 멀리 있지만 강에서 떠옵니다만 케미컬 오염되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마른 시즌에는 회사가 물 탱크에 있는 물을 배분합니다."<sup>83</sup>

2018. 12. 4. 중부 칼리만탄의 팜유 플랜테이션에 위치한 CPO Mill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 ©환경운동연합



# III.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투자

한국 기업은 2008년 삼성물산이 팜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LG상사 및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팜농장을 운영하여 생산량의 대부분을 현지 가공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sup>86</sup> 그 외에도 미원 등 조미료와 청정원 등의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대상그룹도 2009년부터 11,130 ha 규모의 팜농장을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sup>87</sup>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판매 업체인 제이씨케미칼 또한 2012년부터 10,000 ha의 팜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88</sup> 한편, 한국계 기업인이 CEO인 한상(韓商) 기업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재계 20위권의 대기업으로 1998년 팜유 산업에 진출한 이후 160,000 ha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 1. 코린도

### 1) 개요

#### 가. 코린도 그룹

코린도(Korindo)는 연 매출 12억 달러, 직원 2만 명 규모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한국계 대기업으로, 한국(Korea)과 인도네시아(Indonesia)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팜유, 합판, 목재 등의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신문용지 생산, 금융산업 및 해운물류 부문에도 진출해 60개 이상의 자회사<sup>89</sup>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코린도 그룹을 이끄는 승은호 회장은 한국 목재산업의 거목인 고(故) 승상배(1921-2009) 동화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 나.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와 북말루쿠 주에 있는 8개 지역에 약 160,000 ha에 달하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49,000 ha를 차지하는 7개 지역은 파푸아 주에, 나머지 11,000 ha는 북말루쿠 주에 있다. 2019년 1월 현재,

매우 귀중한 75,000 ha의 산림이 파괴되지 않은 채 코린도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보고서에서 밝히는 코린도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면적 및 경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개발 제한 해제 허가(forestland release permits)에서 발췌한 정보 및 지도 등에서 추정한 것이다.

코린도 그룹 개관<sup>90</sup>

코린도그룹	1969년 통화기업 · 인도네시아법인 설립 1976년 코린도(KORINDO) 출범
직원수	2만2897명 (한국인 253명 포함, 2017년 5월 기준)
연매출	12억 달러 (약1조3500억원)
주요 사업	합판, 조림, 팜오일, 고무, 부동산, 중공업, 제지, 건설, 물류, 금융 등
인도네시아 경제 기여도	합판 30% 생산, 신문용지 70% 공급, 누적 식재 1억4665만2000 그루 (서울시 1.15배 면적)

표3. 코린도가 산림개발 제한 해제 허가를 받은 사업장 부지 현황<sup>92</sup>

이름(약자)	플랜테이션자회사	산림개발 제한 허가 번호	면적(ha)
PT TSE 1A	PT Tunas Sawa Erma 1A	171/KPTS-II/1998 (27 February 1998)	14,800
PT TSE 1B	PT Tunas Sawa Erma 1B		19,500
PT GMM	PT Gelora Mandiri Membangun	SK.22/MENHUT-II/2009 (29 January 2009)	11,000
PT DP	PT Donghin Prabhawa	SK.623/MENHUT-II/2009 (5 October 2009)	34,100
PT BCA 1	PTBerkatCiptaAbadi1	SK.328/MENHUT-II/2011 (22 June 2011)	14,500
PT PAL	PT Papua Agro Lestari	SK.52/MENHUT-II/2012 (4 October 2012)	32,300
PT BCA 2	PTBerkatCiptaAbadi2	SK.835/MENHUT-II/2014 (29 September 2014)	14,400
PT TSE 2	PT Tunas Sawa Erma 2	SK.844/Menhut-II/2014 (29 September 2014)	19,000
합계			159,600

코린도 파푸아 팜유 농장 부지 및 소유관계<sup>91</sup>



## 2) 코린도 팜유플랜테이션의 환경·사회 문제

### 산림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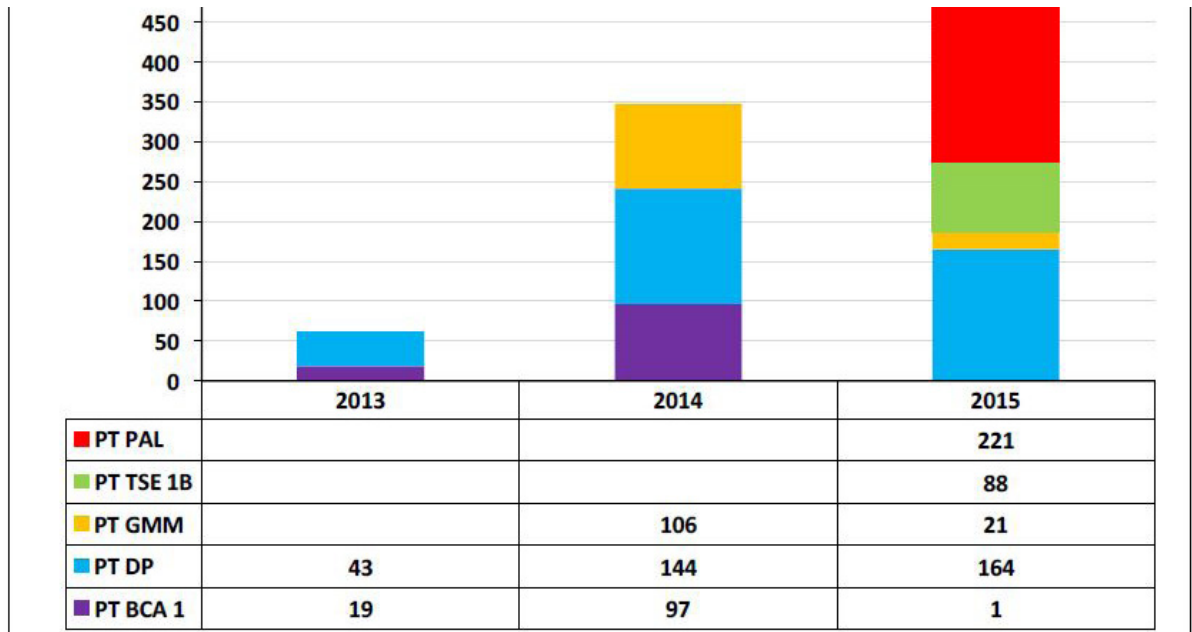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 부지에서 약 50,000 ha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이는 서울시 면적과 맞먹는 크기다. 코린도는 2013년부터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약 3년 만에 30,000 ha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림을 빠르게 파괴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약 11,700 ha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1차림, 18,300 ha는 2차림이었다.<sup>93</sup>

### 화재

지난 2016년 글로벌 환경 연구 비영리 자문 회사인 에이드인바 이런먼트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단체는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를 발표해 코린도가 불을 사용해 토지를 정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성사진, 항공사진, 화재정보 등을 통해 얻은 모든 증거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코린도의 팜 농장 부지에서 최소 894개 이상의 화재지점(hotspots)이 발견<sup>94</sup>되었다.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는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표4. 코린도의 팜유 농장 부지 안에서 포착한 화재지점(hotspot) 현황, 2013-2015<sup>95</sup>



### 지역사회의 권리박탈

코린도의 8개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전체에 선주민들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가 적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사업 허가권을 발급하고, 코린도가 선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북말루쿠 주 남부 할마헤라 지역에 위치한 PT GMM이다. 지난해 11월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 행동네트워크(RAN)등 4개 환경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아주 위험한(Perilous)」에 따르면 PT GMM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선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인정되는 토지와 숲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PT GMM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실패하고, 토지사용 등기(HGU) 역시 취득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 불법적으로 사업을 시작<sup>96</sup>했다고 밝히며 정부에서 PT GMM의 사업 허가권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코린도의 또 다른 팜유 플랜테이션 PT TSE 블록 E 주변에 사는 선주민들이 그들의 관습적 토지에 대한 권리 박탈과 환경피해에 대해 호소하는 영상을 입수했다. 아래는 선주민의 증언이 담긴 영상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관습적 권리가 적용되는 이 땅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코린도에게 우리의 땅을 넘겼습니다. 코린도가 마을에 들어온 이후 우리는 많은 악영향을 입었습니다. 강물 수심이 얕아지고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림파괴로 인해 이곳의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탓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천둥, 번개를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선주민 인권단체 푸사카(PUSAKA)의 프랭키(Franky Samperante)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환경운동연합, 어필과의 인터뷰에서 PT TSE의 토지점거에 반대하는 선주민 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인권탄압에 대해 증언하였다.

### 3) 현황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주요 고객들이 줄지어 거래를 중단했다. 여기에는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같은 글로벌 팜유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이 코린도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sup>98</sup> 2017년 6월에는 삼성 SDS와 코린도 그룹이 통합 물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세계 시민들의 청원<sup>99</sup>으로 인해 이 역시 무산<sup>100</sup>되었다.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자회사(PT PAL, PT GMM)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국기업인 효성은 지난 2016년 9월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코린도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고객 이탈과 여론 악화로 인해 코린도는 자사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전체에 신규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내렸다. 2016년 11월에 PT TSE 그룹(PT TSE, PT BCA, PT DP)이, 같은 해 12월에는 PT PAL과 PT GMM이 차례로 생태보전 평가(High Conservation Value, HCV/ High Carbon Stock, HCS)를 끝마칠 때까지 신규 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sup>101</sup> 그러나 코린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 않으며, 업계가 요구하는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그룹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페투르스(Petrus Kinggo)는 파푸아 주, 보벤디글 군 야일 지역의 칼리카오 마을에 사는 만도보족 선주민 지역사회 지도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는 칼리카오 마을의 토지가 PT TSE의 타깃이 되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투르수와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PT TSE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선주민들로부터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받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서 코린도가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과 어떠한 협력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기 이 사진은 페투르스로부터 올해 7월에 받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부지와 지역주민들이 저항 운동을 하는 장소에 이유 없이 뿌려졌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페투르스의 얼굴만 나와있었죠. 페투르수와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진은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도 회사에 의해 배포된 것 같아요. 도무지 누가 이 사진을 부착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sup>97</sup>

아무 이유 없이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부지에 뿌려진 선주민 지역사회 지도자 페투르스의 사진 ©Franky Samperante



2016. 9.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 촉구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 2. 포스코대우

### 1) 개요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 머라우케 군 울릴린 면에 PT Bio Inti Agrindo(이하 PT BIA)라는 이름의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34,195 ha에 달한다.<sup>102</sup>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은 공교롭게도 코린도의 팜유 농장 PT PAL, PT BCA 1 과 매우 가까이에 있다. PT BIA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나, 포스코대우가 2011년 9월 PT BIA 지분의 85%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나머지 15% 지분의 소유자는 개인투자자<sup>103</sup>로 알려져 있다.

### 2) PT BIA의 환경·사회문제

#### 산림파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제공한 2011년 지역 지도에 따르면 PT BIA의 부지중 약 19,800 ha가 1차림, 15,900 ha가 2차림으로 덮여있었다.<sup>104</sup>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각 블록 1, 블록 2로 구분되어 있다. 블록 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약 6,800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도 2017년 10월을 기점으로 2/3 가량이 정리되었고 현재 약 7,700 ha의 귀중한 숲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05</sup>

#### 화재

2015년 3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GPFG)의 윤리위원회는 PT BIA가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sup>106</sup> 이들이 제공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PT BIA의 서부구역 블록 1에서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60개의 화재지점이 기록되었다. 포스코대우는 화재 발생의 원인을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탓으로 돌렸으나 GPFG의 윤리위원회는 “토지정리와 무관하게 몇 년에 걸쳐 그토록 자주 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 지역사회 권리박탈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 역시 선주민들의 관습적 권리가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 2017년 8월,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수질 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sup>107</sup>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PT BIA의 부지 중 블록1에 해당하는 곳은 ‘만도보족’이 관습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PT BIA는 2010년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에게 돈을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만도보족은 말린족과 전통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선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군인이 시위대가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고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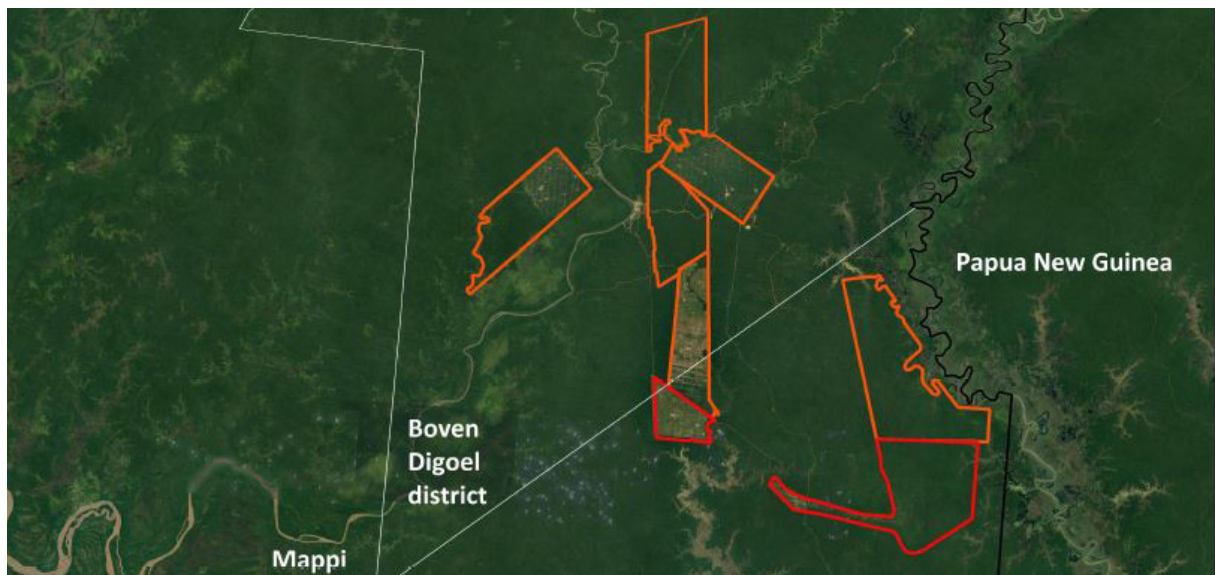
또한 주민들은 수질오염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뒤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강이 오염되어 일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1월 “포스코대우,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악영향 알고도 팜유 사업 강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sup>108</sup>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sup>109</sup>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018년 12월 시사 주간지 <한겨레21>는 PT BIA 인근 지역에 집적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담은 현지 르포<sup>110</sup>를 보도했다. 만도보족의 토지소유권 침해, 환경 피해 등의 이슈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포스코대우는 전면 부인하였다.

### 3)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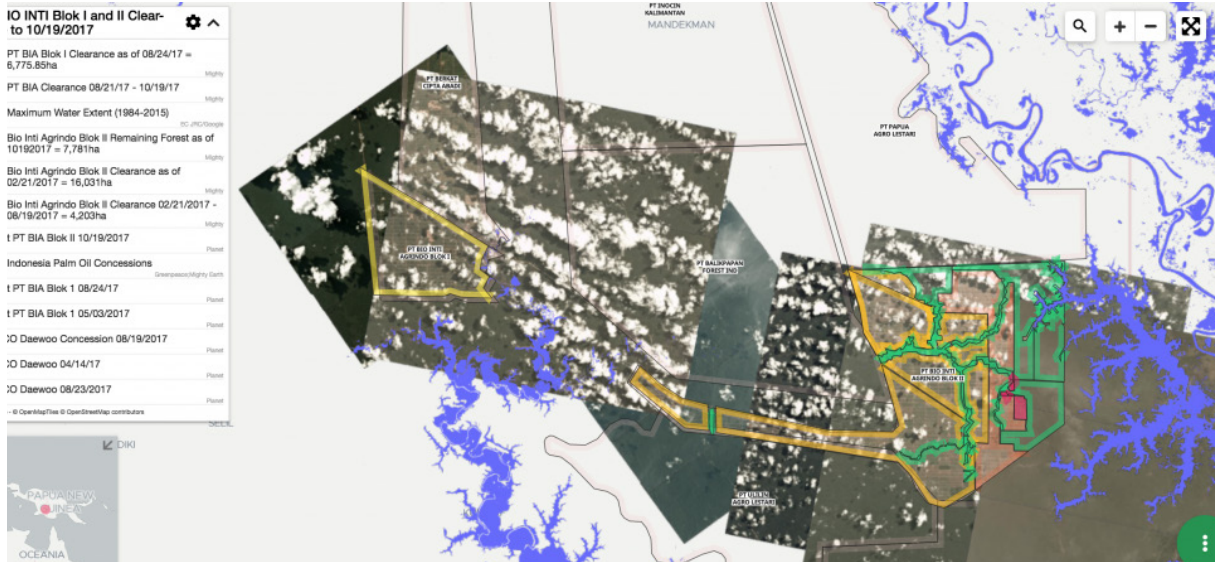
앞서 밝혔듯 2015년 3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GPFG)의 윤리위원회는 PT BIA 사업장에서 발생한 열대림 파괴, 화재,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GPFG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포스코대우와 모기업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가 출시된 2017년에는 20개가 넘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을 채택하고 이행할 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겠다<sup>111</sup>고 발표했다. 2018년 2월에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중단<sup>112</sup>을 선언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포스코대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며 투자철회를 발표<sup>113</sup>했다.

업계와 투자 기관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가 포스코대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과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채택, 지역 사회와의 토지분쟁 해결이다. 이에 포스코대우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2018년 1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sup>114</sup>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대우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NDPE 정책 역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받았다는 자문의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 PT BIA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린도의 팜유 농장 부지이다.)



2017. 10. 19 포스코대우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위성영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산지정리가 끝난 곳이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Mighty Earth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된 비안강 ©Mighty Earth



### 3. 삼성

#### 1) 개요

삼성물산은 2008년 7월, 인도네시아의 대형 팜유 기업인 아테나 홀딩스와 합작법인 S&G Biofuel Pte Ltd를 설립하고, 수마트라섬 리아우 주에 위치한 PT Gandaerah Hendana와 PT Inecda를 인수하여 총 24,000 ha 규모의 팜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339,000 톤의 팜 열매를 수확하고 농장 내에 있는 팜유 가공공장을 통해 85,000 톤의 CPO를 생산하였다.<sup>115</sup> 생산된 CPO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내의 가공회사로 판매를 하며, 일부는 국내외 바이오디젤 업체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sup>116</sup>

2016년 말, 기업인권네트워크에서는 리아우 주의 PT Gandaerah Hendana와 PT Inecda가 위치한 두 지역을 방문한 후, 팜 농장이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PT Gandaerah Hendana와 PT Inecda에서도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선주민들의 생계 박탈, 토지 분쟁, 물 부족 및 오염 문제와 농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문제 등 팜 플랜테이션이 운영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2)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문화권 침해

PT Inecda의 경우, 탈랑 마막이라는 선주민들이 오랫동안 주변의 숲과 강에 의존하여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PT Inecda의 팜농장으로 인하여 숲이 사라지고 강이 메마르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져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PT Inecda에 고용된 사람은 5%가 채 되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이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다가 여자아이들은 11-13세에 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이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을 수행하던 조상의 무덤 지역이 훼손이 되고 의식에 사용되는 나무의 가루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어 문화와 종교까지도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sup>117</sup>

##### 토지분쟁

특히 탈랑 마막 선주민들은 PT Inecda의 팜농장 지역 중 많은 부분이 이들의 공동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PT Inecda가 경작허가권(HGU)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118</sup> 삼성물산 측에서는 농장의 경작허가권에 대한 분명한 근거에 대해 밝힌 바 없이, 토지에 대한 분쟁을 잠재울 목적으로 토지를 되찾으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선주민 리더들에게 돈을 주거나 나무 경작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수한다고 한다.<sup>119</sup>

##### 물부족 및 오염

또한 PT Gandaerah Hendana와 PT Inecda 농장 주변 지역 주민 모두 팜농장으로 인하여 모두 수질 오염과 물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모두 우물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마시거나 사서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다. 마실 물 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강물도 오염이 되어 빗물을 이용하거나 물을 사서 이용하고 있다.<sup>120</sup>

##### 타깃 시스템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 시간 및 kernet 노동자 양산

PT Gandaerah Hendana와 PT Inecda 농장의 노동자 모두 다른 팜농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타깃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시간과 패널티 시스템, 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2016년 11월 PT Gandaerah Hendana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아동노동이 발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이 발견되었다.<sup>121</sup>

##### 독성 물질 사용 및 보호장비 미비

또한 두 팜농장에서는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2012년 이후로 사용 및 금지가 보관도 금지가 된 유해물질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sup>122</sup>

##### 열악한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이외에도 농장 안에서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물부족 및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있는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팜 열매 찌꺼기를 정화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23</sup>

### 3) 현황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삼성물산에서는 탈랑마막 선주민들은 농장법인의 합법적인 경작지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장법인의 토지와 겹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주민을 위한 지역발전 기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종교행사 지원, 인근주민 우선채용 등을 지속하여 선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sup>124</sup>

한편 2017년부터 그라목손을 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sup>125</sup>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 환경부 지정업체의 대기 및 소음 측정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청 주관으로 이루어진 수질, 공해, 소음 등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으나,<sup>126</sup> 이러한 규제가 공장 인근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삼성물산 농장에서 발견한 그라목손 광고 ©공익법센터 어필



PT Inecda 농장 노동자가 사용하는 보호장구 ©공익법센터 어필



2016.11.12.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PT Gandaerah Hendana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들과 아버지 ©공익법센터 어필



## 4. 기타 한국기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대상과 LG의 사업장에서도 전형적인 환경,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데스크리서치를 통해 확인되었다.

### 1) 대상

#### 개요

대상그룹은 2009년 11월,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 PT. Miwon Agroencana Saktii를 설립하고, 보르네오섬 서부 칼리만탄 주에 위치한 PT. Sintang Raya를 인수하여 총 11,130 ha 규모의 팜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6월, 같은 지역에 팜유 공장을 준공하여 연 35,000 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있다.

#### 토지 분쟁

PT. Sintang Raya는 꾸부라야(Kubu Raya)지역의 주민들과 토지 분쟁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PT. Sintang Raya가 Sungai Selamat, Mengkalang, Seruat II, Seruat III, Dabong, Ambawang의 6개 마을의 경작허가권(HGU)을 얻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및 논의 절차 없이 마을의 리더들을 모아둔 자리에서 보상 없이 회사에게 토지를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눈 앞에 불도저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Olak-Olak Kubu와 Pelita Jaya 마을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마을의 많은 부분이 PT. Sintang Raya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200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폰티아낙(Pontianak) 사무소에 논의 절

차 없이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공받지는 못하였다.<sup>127</sup>

이후 결성된 꾸부라야 농민 조합(Serikat Tani Kubu Raya, STKR)를 중심으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더욱 활발히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1년 9월에는 Olak-Olak Kubu와 Pelita Jaya 지역의 농민들이 PT. Sintang Raya의 경작허가권(HGU)의 무효성에 대해 지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폰티아낙 토지청에게 문제가 된 5 ha를 제외하고 남은 지역에 대해 다시 경작허가권을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 토지청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경작허가권이 취소된 5 ha의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28</sup>

#### 농민들의 범죄화

이러한 판결을 계기로 STKR은 회사가 새롭게 경작허가권을 받기 전까지는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팜 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가져가는 등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행동에 가담한 농민들을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많은 농민들이 형을 선고 받고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농민들은 권리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범죄화를 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sup>129</sup>

#### 플라즈마 미이행

그 외에도 회사가 전체 11,128.9 ha의 20%인 2,200 ha를 플라즈마로 지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으로 1,362 ha



만이 플라즈마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특히 회사 측에서는 플라즈마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장 지역 외에 추가로 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sup>130</sup>

### 노동자들의 문제

한편, PT. Sintang Raya의 노동자 중 많은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sup>131</sup> 2016년 5월에는 회사에 고용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왔으나 급여 등 조건이 약속된 것과 달라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sup>132</sup>

## 2) LG

### 개요

LG상사는 2009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자회사PT. Green Global Lestari를 통해 보르네오섬 서부 칼리만탄 주에 위치한 총 20,000 ha 규모의 팜농장을 소유한 PT. Parna Argomas(PT. PAM)를 인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팜유 공장을 준공하여 2017년 기준 연간 86,000톤 규모로 팜유를 생산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기존의 농장을 운영중이던 서부 칼리만탄 주에 각각 8,000 ha와 17,000 ha 규모의 팜농장을 새롭게 인수하여 연간 180,000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33</sup>

### 토지분쟁

PT. PAM은 스끼다우(Sekadau)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Semadu 마을의 318 ha가 숲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팜농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sup>134</sup> 2010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경로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잘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에서 팜 열매를 수확한 농민 5명이 절도죄로 고발 당하여 경찰에 구금이 당한 것에 대해 범죄화라는 비판도 있었다.<sup>135</sup>

### 수질 오염

또한 2016년에는 Semadu 지역 주민들이 PT. Parna Argomas로 인하여 강이 오염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여 지역의 환경청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sup>136</sup>

서부 칼리만탄, 꾸부라야 지역의 PT. Sintang Raya와 지역 주민들의 토지 분쟁으로 인해 HGU(경작허가권) 표지판에 회사 이름을 지우고 '지역 주민들의 땅' 이라고 표기를 한 모습 ©Agra Kalimantan Barat



PT. Sintang Raya에 항의하고 있는 OlakOlak 마을 주민들 ©Agra Kalimantan Barat



## IV. 한국의 팜유 수입 및 유통 현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sup>137</sup>와 미국 농무부에서 공개한 통계<sup>138</sup>에 따르면 한국은 1966년에 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후로 국내 연간 팜유 및 팜핵유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FA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총 475,936 톤의 팜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S코드 (Harmonized System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 팜유를 원료로 하는 기름으로 분류되는 6가지 항목에<sup>139</sup> 대해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팜유류 6가지의 총 수입량이 2006년도 약 195,368 톤에서 2016년도 약 475,215 톤으로 십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류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에는 약 606,947 톤을 수입하며 2년 사이에 수입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HS코드 1511909000로 분류되는 팜유류 중, 인도네시아 산 팜유의 수입량이 2016년도 64,743 톤에서 2018년도 219,886 톤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40</sup> 이렇게 수입된 팜유류 중 많은 양이 식용유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행한 식품산업원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중 67%인 137,739 톤이 면류 가공에 사용되었으며, 12.9%인 26,486 톤이 과자류 제조에 활용되었다.<sup>142</sup>

표5. 팜유류 수입량 및 금액(2007-2018)<sup>1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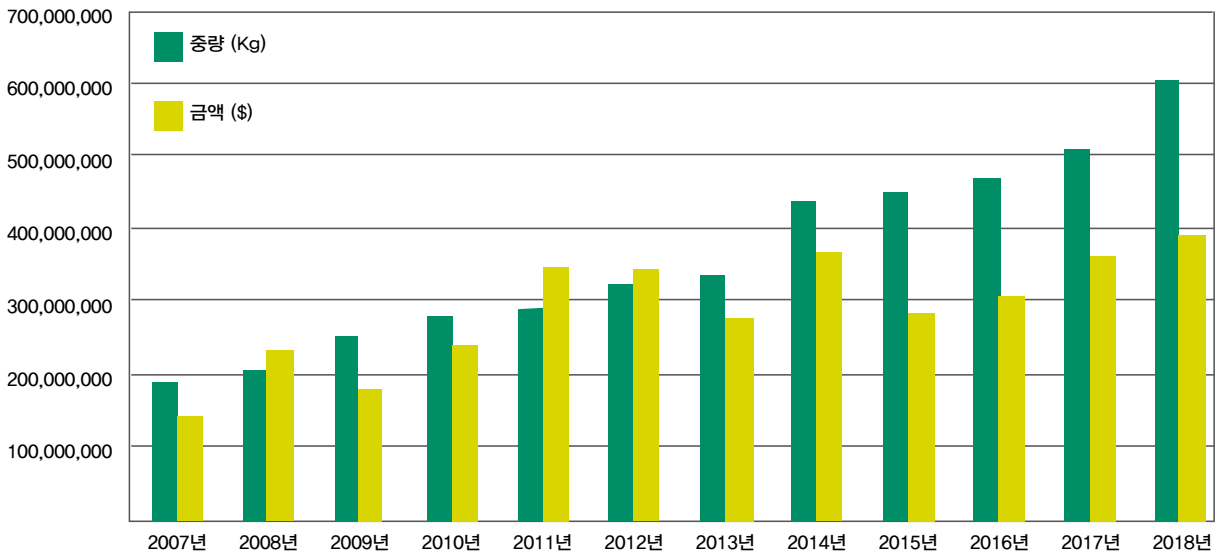


표6. 팜유 수입국가 비율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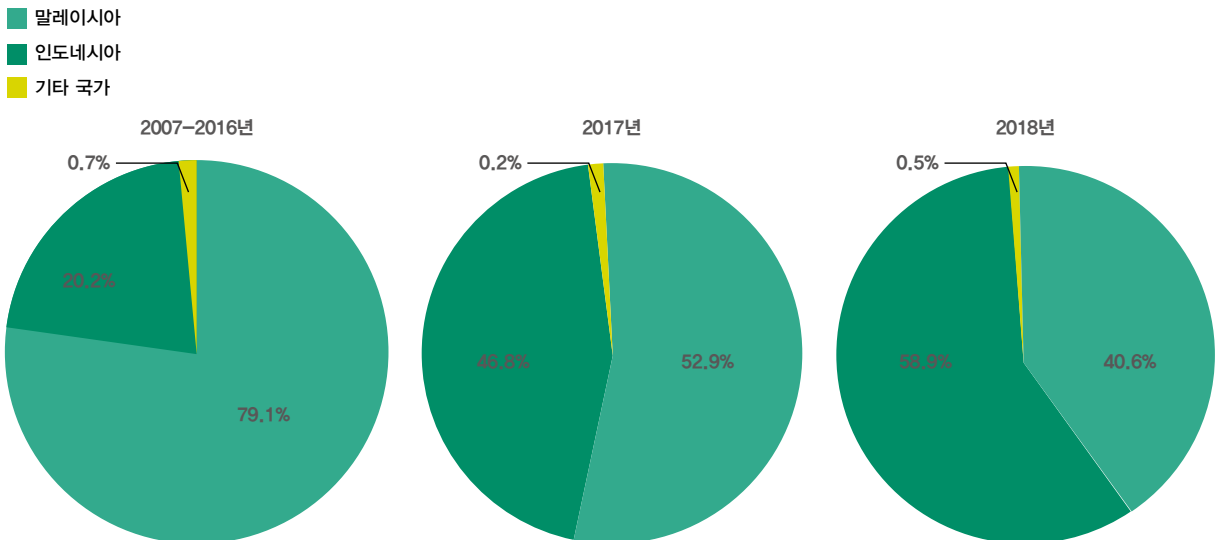




표7. 팜유류 용도별 사용량 및 사용 비중<sup>143</sup>

구 분		사용량 (ton)	품목별사용 비중 (%)	국산 사용 비중 (%)
전 체		204,409	100.0	0.0
육류 가공품	양념육류	2	0.0	0.0
	분쇄가공육	185	0.1	0.0
조미수산 가공품류	어육 가공품	277	0.1	0.0
식용 유지류	조미유	114	0.1	0.0
식용유지가공품	식용유지 가공품	10,429	5.1	0.0
유가공품	분유	1,103	0.5	0.0
	치즈	867	0.4	0.0
	기타 유가공품	1,845	0.9	0.0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115	0.1	0.0
밀가루/분말류	가공 밀가루	43	0.0	0.0
면류	라면	137,711	67.4	0.0
	기타면류	28	0.0	0.0
곡물 가공품	시리얼	9	0.0	0.0
빵류	빵류	7,195	3.5	0.0
과자류	스낵류	23,946	11.7	0.0
	비스킷/쿠키류	1,516	0.7	0.0
	기타과자	1,024	0.5	0.0
캔디/초콜릿/껌류	캔디류	0.02	0.0	0.0
	초콜릿 및 초콜릿 가공품	927	0.5	0.0
장류	간장	9,358	4.6	0.0
드레싱/소스류	드레싱/마요네즈	1	0.0	0.0
	소스류	153	0.1	0.0
조미식품	조미료	56	0.0	0.0
	기타 조미식품	2	0.0	0.0
커피/코코아류	인스턴트커피	1,685	0.8	0.0
	코코아	7	0.0	0.0
차류	기타차류	6	0.0	0.0
즉석섭취 식품	기타즉석 섭취식품	9	0.0	0.0
즉석조리 식품	즉석밥류	1	0.0	0.0
	즉석탕/국/찌개류	104	0.1	0.0
	즉석 육류식품	109	0.1	0.0
	기타즉석조리식품	363	0.2	0.0
기타가공식품류	땅콩/견과류 가공품	329	0.2	0.0
	기타 가공식품	4,890	2.4	0.0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0.02	0.0	0.0
급식	급식	0.1	0.0	0.0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기조에 따라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sup>144</sup> 그 중 팜유 및 팜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로는 팜 정제유와 팜 부산물이 원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팜유래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화장품에 글리세린을 비롯한 팜유래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46</sup> 활용처와 사용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8. 연도별('15~'17년) 팜 부산물 등 바이오디젤의 원료별 사용량 및 비중<sup>145</sup>

구분	2015		2016		2017	
	사용량(천톤)	비중(%)	사용량(천톤)	비중(%)	사용량(천톤)	비중(%)
팜 정제유	28.3	7%	27.6	6%	43.7	9%
팜 부산물	169.6	40%	208.6	47%	241.7	48%
식물성유지(폐식용유 등)	149.9	36%	153.1	34%	159.5	32%
동물성유지	27.4	7%	26	6%	21.2	4%
기타	46.1	11%	29.2	7%	33.2	7%
합계	421.3	100%	444.5	100%	499.3	100%



슈퍼마켓에 진열된 팜유를 사용한 과자 및 생활용품 ©환경운동연합



바이오디젤이 포함된 경유를 판매 중인 주유소의 모습 ©공익법센터어필



인도네시아 산 팜유가 널리 사용되는 아이스크림 ©공익법센터어필



## V. 결론

본 보고서는 세계 팜유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이 심각한 환경, 사회,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에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팜유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2017년 4월 '팜유와 열대우림의 파괴' 결의를 채택하여 팜유 산업을 산림 파괴 및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2020년까지 EU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의 원료에 팜유를 단계적으로 제외시키는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sup>147</sup>

###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역외 의무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할 것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특히 기업이 해외에서 선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거나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건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절차를 모니터링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다.<sup>148</sup>

한편 한국 정부는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과 지배력을 갖는 기업(하청업체, 가맹점 등)과 공급망(공급업체 등)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 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점검 의무(due diligence)를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한국의 사법,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정부의 조달과 기업에 대한 용자, 원조, 보조금 지급 결정시, 국내외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점검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49</sup>

### 한국 정부의 의무 미이행

####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미이행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플랜테이션 지역에서는 선주민들과의 토지 분쟁을 비롯하여 이들의 생존권, 문화권 침해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아동 노동마저도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환경 문제 등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한국 기업의 자회사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공적자금 대출의 문제

특히 한국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거하여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농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sup>150</sup>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는 각각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제도와<sup>151</sup>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sup>152</sup>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융자 신청접수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융자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의 경우, 융자 심의과정에서 지원 사업이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sup>153</sup>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의 경우, 팜유 나무 사업에 융자 신청은 바이오에너지용으로 제한을 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심의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sup>154</sup> 해당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대상홀딩스, LG상사, 한국남방개발, 제이씨케이칼에 총 24,118,000,000원이 지원이 되었으나,<sup>155</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융자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환경 및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급망 모니터링의 부재

또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양의 인도네시아산 팜유가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유통경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한 예로, 2019년 초,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팜유래원료가 사용된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의 제품 및 업체명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팜유래 원료 32종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 식품이 전국에 단 한가지라고 답하였다.<sup>156</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년에만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제조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파악하였으나, 이 팜유류가 실제로 어떤 식품의 원료로 쓰였는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통해 환경 파괴와 인권 및 노동권 침해로 생산된 팜유를 소비하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실정이다.

###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코린도의 경우에도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악명 높은 산림파괴 기업이라 질타를 받고 있으며, 포스코대우는 운영하는 팜유농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인해 세계적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 철회를 당하기도 하였다.<sup>157</sup>

이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에게 다음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20.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장면 ©공익법센터 어필



## 권고

### 1) 한국 정부

-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환경 및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특정 국가의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경우, 환경 및 인권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환경, 인권, 노동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진출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팜유 산업의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과 산림청의 해외산림 자원개발정책자금 융자지원 결정 과정에서 팜유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 해당 사업이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환경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할 것.
- 한국 기업에 의해 환경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법률 조력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수입품이 인권 및 환경 문제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수입품이 사용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이후의 유통과정을 관리할 것. 이를 통해 제품의 공급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각 공급망에서 환경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2) 한국 기업

- 신규로 산림을 파괴해 농장을 확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 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이 정책은 그룹의 자회사, 합작 투자사 및 공급망을 구성하는 업체들에게 모두 적용할 것.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사업면적 취득 및 등록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를 공개해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할 것. 사업구역 허가서(Izin Lokasi), 환경영향평가 증명서(AMDAL), 토지사용 등기(HGU)는 기본적으로 입증할 문서에 포함해야 할 것.
- 지역사회 동의 없이 무단 점거하여 운영 중인 플랜테이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반환할 것. 그곳의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 권리침해 및 생계수단 박탈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 적절한 양의 타기 설정을 통해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화학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시에는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비를 지급할 것.



2017. 7. 31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베트남 숲에도 불은 오는가?"

# 참고문헌

1.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세계 팜유시장 동향" (2012. 6. 18), p.3
2. European Palm Oil Alliance, "Palm oil consumption" <https://www.palmoilandfood.eu/en/palm-oil-consumption>
3. Statista, "Production volume of palm oil worldwide from 2012/13 to 2017/18 (in million metric ton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13471/palm-oil-production-volume-worldwide/>
4. Digital Journal, "Global Palm Oil Market 2017-2022: Size, Share, Price, Trends, Industry Analysis and Outlook | Expert Market Research" <http://www.digitaljournal.com/pr/3362187>
5. Indonesia Investments, "Palm Oil"(2017. 6. 26)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business/commodities/palm-oil/item166?>
6. WWF, "Palm Oil Fact Sheet" <https://deforestationandpalmoil.weebly.com/uploads/1/8/8/5/18854416/wwf.pdf>
7. Rainforest Trust, "Climate Change Series Part 1 – Rainforests Absorb, Store Large Quantities of Carbon Dioxide" (2017. 9. 1) <https://www.rainforesttrust.org/climate-change-series-part-1-rainforests-absorb-store-large-quantities-carbon-dioxide/>
8.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Tropical Deforestation and Global Warming: A Solution" (2011. 1) [https://www.ucsusa.org/sites/default/files/legacy/assets/documents/global\\_warming/Tropical-Deforestation-Basics.pdf](https://www.ucsusa.org/sites/default/files/legacy/assets/documents/global_warming/Tropical-Deforestation-Basics.pdf)
9.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Palm oil and Global Warming" (2013. 12) [https://www.ucsusa.org/sites/default/files/legacy/assets/documents/global\\_warming/palm-oil-and-global-warming.pdf](https://www.ucsusa.org/sites/default/files/legacy/assets/documents/global_warming/palm-oil-and-global-warming.pdf)
10. World Economic Forum, "5 ways to restore Indonesia's tropical peatlands" (2016. 3. 30)<https://www.weforum.org/agenda/2016/05/5-steps-to-restore-indonesia-tropical-peatlands/>
11. Friends of the Earth Europe, "Failures in Wilmar's promise to clean up the palm oil business" (2015. 12) <http://www.foeeurope.org/up-in-smoke-failures-Wilmar%E2%80%99s-promise-clean-up-palm-oil-business>
12. The Guardian, "Indonesia's forest fi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2015. 11. 11)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nov/11/indonesia-forest-fires-explained-haze-palm-oil-timber-burning>
13. The World Bank, "Indonesia's Fire and Haze Crisis" (2015. 11. 25)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5/12/01/indonesias-fire-and-haze-crisis>
14. The Guardian, "Palm oil producers are wiping out orangutans – despite multinationals' promise" (2018. 5. 1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may/10/palm-oil-orangutans-multinationals-promises-deforestation>
15. The Guardian, "The last place on Earth: how Sumatra's rainforest is being cleared for palm oil" (2017. 9. 28)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7/sep/28/last-place-on-earth-deforestation-palm-oil-threat-leuser-rainforest>
16. Goldman Environmental Foundation, "Clearing the Way for Plantations: Land Grabs, Deforestation and Endangered Species" (2015. 2. 11) <https://www.goldmanprize.org/blog/clearing-way-plantations-land-grabs-deforestation-and-endangered-species/>
17.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썬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와디안(Wardian)과의 인터뷰 (2018. 12. 2)
18. 엄은희,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과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2014), p.8
19. 경향신문, "[어제의 오늘] 2000년 인도네시아 검찰, 수하르토 기소" (2010. 8.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22141015&code=10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22141015&code=100100)
20. The Guardian, "Palm oil companies exploit Indonesia's people - and its corrupt political machine" (2015. 1. 11)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jun/11/palm-oil-industry-indonesia-corruption-communities-forests>
21. 아시아투데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뇌물문제 심각... '부패척결' 공약 공허한 외침" (2018. 7. 29)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729010016312>
22. 왈히(WALHI)는 인도네시아 최대 풀뿌리 환경단체로 국제 환경네트워크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단체이기도 하다. 왈히는 인도네시아 31개주 중 27개 지역에 독립적인 지부를 두고 있다. 중부 칼리만탄에는 왈히 중부 칼리만탄(WALHI Kalimantan Tengah) 이 있다. <http://walhikalteng.org/>
23. 왈히 중부 칼리만탄 디렉터 디마스(Dimas N. Hartono)와의 인터뷰 (2018. 11. 30)
24. 인디스(INDIES)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베이스를 두고 민주주의, 인권, 개발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리서치 중심 단체이다.
25. 인디스 디렉터 와완(Kurniawan Sabar)과의 인터뷰 (2018. 12. 3)
26.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산업조림 및 농장 투자매뉴얼" (2012), Greenpeace International, "Final Countdown" (2018), pp.152-153 참조
27.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썬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와디안(Wardian)과의 인터뷰 (2018. 12. 2)
28. NAMATI, "MIDCOURSE MANOEUVRES: community strategies and remedies for natural resource conflicts in Indonesia", (2018. 1. 22) p.23 <https://namati.org/resources/midcourse-manoevres-community-strategies-remedies-natural-resource-conflicts-indonesia/>
29. CIFOR, "The impacts of oil palm plantations on forests and people in Papua: A case study from Boven Digoel District" (2014), p.10 [http://www.cifor.org/publications/pdf\\_files/WPapers/WP163Andrianto.pdf](http://www.cifor.org/publications/pdf_files/WPapers/WP163Andrianto.pdf)
30. The Guardian, "Palm oil: why do we care more about orangutans than migrant workers?" (2015. 11. 9)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nov/09/palm-oil-migrant-workers-orangutans-malaysia-labour-rights-exploitation-environmental-impacts>
31.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썬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와디안(Wardian)과의 인터뷰 (2018. 12. 2)
32. Plantation Law/2014 Article 58, Regulation of the Indonesian Minister of Agriculture No. 98/Permentan/OT.140/9/2013 concerning Plantation Business License Guidelines ("Permentan No. 98/2013") Article 15



33.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와디안(Wardian)과의 인터뷰 (2018. 12. 2)
34.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Expanding Oil Palm Cultivation in Indonesia: Changing Local Water Cycles Raises Risks of Droughts and Floods" (2017. 1) [https://www.die-gdi.de/uploads/media/BP\\_1.2017.pdf](https://www.die-gdi.de/uploads/media/BP_1.2017.pdf)
35.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부르한(Burhan)과의 인터뷰 (2018. 12. 3)
36. 시사IN, "한국 대기업 횡포에 신음하는 원주민들" (2017. 8. 27)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308&aid=0000021553&sid1&ntype=RANKING>
37. 4-8m에 달하는 팜 나무에 달린 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거대한 크기의 잎사귀와 뾰족한 가시로 둘러 쌓인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열매 하나의 무게가 20~3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수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통 끝에 낫이 달린 긴 장대를 활용하여 팜 열매 다발을 수확한다.
38. 중부 칼리만탄 세루안 지역 셀블루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와디안(Wardian)과의 인터뷰 (2018. 12. 2)
39. Mongabay, "Palm oil companies continue to criminalize farmers in Sumatra (commentary)" (2019. 1. 14) <https://news.mongabay.com/2019/01/palm-oil-companies-continue-to-criminalize-farmers-in-sumatra-commentary/>
40. WALHI, Dirty plan behind palm oil bill (2018), p.9 [https://walhi.or.id/wp-content/uploads/2018/03/KertasPosisi-Perkelapasawitan2018\\_TranslatedInggris.pdf](https://walhi.or.id/wp-content/uploads/2018/03/KertasPosisi-Perkelapasawitan2018_TranslatedInggris.pdf)
41. tirta.id, "malam, ponsel saya berdering. Nomor yang tidak saya kenali. Saya mengangkatnya" (2016. 10. 10) <https://tirta.id/musim-konflik-agraria-yang-tak-pernah-berakhir-cc6j>
42. WALHI, 위 보고서, p10
43. RAN, OPPUK, ILRF, "The Human Cost of Palm Oil" (2016), p. 16; Amnesty International, "The Great Palm Oil Scandal" (2016), p.10
44.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16
45. 기업인권네트워크,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인도네시아 조사 보고서" (2016), p.93
46.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16;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25
47. 1kg당 37 루피아 (2015년 북부 수마트라 플랜테이션,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24); 1톤당 30,000 루피아 (2016년도 리아우 플랜테이션,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93)
48. 중부 칼리만탄의 플랜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M과의 인터뷰 (2018. 12. 4)
49.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25
50.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중 칼리만탄의 플랜테이션에서 근무를 했던 여성 노동자 M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타킷을 마치는 경우에는 35,000루피어를 지급받았으나 타킷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00-20,000 루피어를 받았다고 한다. (2018. 12. 4)
51.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20
52. RAN, OPPUK, ILRF, "The Human Cost of Conflict Palm Oil Revisited" (2017), p.11
53. RAN, OPPUK, ILRF, "The Human Cost of Palm Oil" (2016), p. 30
54.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p. 32-39
55.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27
56.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 77-78
57.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37
58.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00,000명 중 70%가 임시직 노동자라고 분석한 통계가 있다 (WALHI, 위 보고서, p.9).
59. 임시직으로 고용된 여성 관리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을 해도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았다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21).
60. 중부 칼리만탄의 Tapian Nadenggan Inc와 Mitra Karya Agroindo Inc의 경우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nd Sawit Watch, "Profit Over People: Working Conditions in Sinar Mas Palm Oil Supply Chain" (2018), pp.18-19)
61. 북수마트라의 한 플랜테이션에서는 회사가 소속되어있는 수마트라 플랜테이션 연합과 회사의 노조가 수십년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아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지역 노조 및 NGO는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24).
62. USD는 최근 몇년간의 평균 환율 1 IDR=0.00007USD를 일괄 적용한 대략적인 수치임.
63.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25
64.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25
65.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30
66.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 89
67.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30
68.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25
69.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nd Sawit Watch, 위 보고서, p.20
70. 중부 칼리만탄의 플랜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R과의 인터뷰 (2018. 12. 4)
71. 리아우의 플랜테이션에서는 라운드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2016), p. 83), 북부 수마트라의 플랜테이션에서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후, 그라막손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Elang이라는 제초제를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RAN, OPPUK, ILRF, "The Human Cost of Conflict Palm Oil Revisited (2017), p.20).
72. RAN, OPPUK, ILRF, "The Human Cost of Palm Oil" (2016), p. 28

73. 2015년 북부 수마트라에서 실시한 조사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27), 2015년 중부 칼리만탄에서 실시한 조사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68), 2016년 리아우에서 실시한 조사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 83-84), 2018년 중부 칼리만탄에서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만난 노동자 모두가 팜 플랜테이션에서 그라막손과 같은 파라콰트를 포함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74. Amnesty International, 위 보고서, p.67, footnote 228 참조
75. 중부 칼리만탄의 한 플랜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M과의 인터뷰 (2018. 12. 4)
76. 중부 칼리만탄의 한 플랜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R과의 인터뷰 (2018. 12. 4)
77.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28
78. 2015년 북부 수마트라의 플랜테이션에서는 열매 다발이 떨어진 것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p. 29-30 참조).
79.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85
80.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85
81. 대규모 플랜테이션에는 다른 지역에서 땅을 뺏기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시행한 강제이주프로그램 (transmigration)의 일환으로 자바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3세대 혹은 4세대 후손들이 경우도 있다 (RAN, OPPUK, ILRF, 위 보고서, p. 19 참조). 결국 대규모 플랜테이션 사업이 시작될 당시 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은 공허한 약속이며, 땅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가던 많은 사람들을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어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 리아우 주에 있는 한 플랜테이션의 경우, 회사에서 우물을 만들어 주었으나 물이 말라 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 97 참조), 중부 칼리만탄주의 한 플랜테이션의 경우 회사에서 일주일대 2, 3번 생활용수를 공급해주고 있으나 육안으로도 오염도가 확인이 되는 정도의 수질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nd Sawit Watch, 위 보고서, pp.29-30. 참조
83.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 98
84.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 98
85.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 99
86. 자카르타경제신문, "종합상사, '미래먹거리' 팜오일 ..."인니 수요 주춤...단기적 영향" (2017. 9. 11), [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business&wr\\_id=12112](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business&wr_id=12112)
87. 이투데이, "대상홀딩스, 인도네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업 진출 (2009. 11. 23),<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199&idxno=270232#csidx06ce32f09be5707b56725414e539bfe>
88. 이투데이, "제이씨케미칼, 4만5000톤 생산규모 인니 팜오일공장 준공" (2016. 11. 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10554#csidxdb4d5b02251c7f08c83a9166f3f9ba8>
89. 조선비즈, "[Interview in Depth: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밀림의 개척자' 무기는 3 " (2017. 10. 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201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2015.html)
90. 조선비즈 "[Interview in Depth: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밀림의 개척자' 무기는 3 " (2017. 10. 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201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2015.html)
91. Aidenvironment, "Burning Paradise" (2016. 8), p9
92.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al and Forestry), 산림개발 제한 해제 현황, 2015.5, <http://bit.ly/1R5haD5>
93. Aidenvironment, 위 보고서, p.13
94. Aidenvironment, 위 보고서, p.15
95. Fire Inform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System (FIRMS), <http://go.nasa.gov/27awNFg>
96. Rainforest Action Network, "Perilous" (2018. 11), p.21
97. 인도네시아 선주민 인권단체 푸사카(PUSAKA)의 프랭키(Franky Samperante)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2018. 11. 28)
98. Mighty Earth, "Burning Paradise: Palm oil in the Land of the Tree Kangaroo" (2016. 9. 1) Palm oil consumer part, <http://www.mightyearth.org/BurningParadise/>
99. 국제환경단체 Mighty Earth가 청원페이지 Avaaz에 게시한 "Samsung: Drop Deforestation" 청원 [https://secure.avaaz.org/en/community\\_petitions/Samsung\\_Tell\\_Samsung\\_to\\_Stop\\_Human\\_Rights\\_Violations\\_and\\_Rainforest\\_Destruction\\_in/](https://secure.avaaz.org/en/community_petitions/Samsung_Tell_Samsung_to_Stop_Human_Rights_Violations_and_Rainforest_Destruction_in/)
100.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삼성 SDS,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 중단 선언" (2017. 9. 12)
101. Mighty Earth, "Korindo announces moratorium on forest clearing for palm oil concessions but critical questions remain" (2017. 1. 10) <http://www.mightyearth.org/korindo-announces-moratorium-but-questions-remain/>
102. PT. Bio Inti Agrindo, "2016 PT. BIA 환경사회보고서" (2017), p.4
103. PT. Bio Inti Agrindo, 위 보고서, p.3
104. Aidenvironment, "Burning Paradise", (2016. 8) p.36
105.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포스코대우, 2017년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열대림 빠른 속도로 파괴" (2017. 10. 30), <http://kfem.or.kr/?p=184717>
106. Etikkr det for Statens pensjonsfond utland, "Recommendation to exclude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POSCO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2015. 3. 27) P.6 <https://etikkradet.no/files/2017/02/Recommendation-Daewoo-270315.pdf>
107. 시사IN, "한국 대기업 횡포에 신음하는 원주민들" (2017. 8. 24)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53>
108.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포스코대우,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악영향 알고도 팜유 사업 강행" (2017. 11. 7)<http://kfem.or.kr/?p=185065>
109. PT BIO INTI AGRINDO, "MAIN REPORT ANALYSIS ON THE IMPACT TO LIVING ENVIRONMENT (ANDAL) OF THE CONSTRUCTION OF PLANTATION AND OIL PALM PROCESSING PLANT OF PT BIO INTI AGRINDO In Merauke Regency Papua Province" (2009. 4) <http://www.mightyearth.org/wp-content/uploads/2017/09/AMDAL-PT-BIO-INTI-AGRINDO-gabung-English-version-3.pdf>
110. 한겨레21, "빼앗긴 땅에 들어선 한국 팜 농장" (2018. 12. 28)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6390.html](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6390.html)

111. 팜유 바이어들과 투자기업들이 포스코대우 혹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PT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한 차트 <http://www.mightyearth.org/wp-content/uploads/2016/07/mightychart-2.pdf>
112.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2018. 2. 1) <http://kfem.or.kr/?p=187743>
113. ABP, “ABP verkoopt aandelen palmoliebedrijf ” (2018. 6. 22) <https://www.abp.nl/over-abp/actueel/nieuws/abp-verkoopt-aandelen-palmoliebedrijf.aspx>
114. Politico, “UK drugstore Boots cuts ties with major palm oil producer” (2018. 1. 16) [https://www.politico.eu/pro/uk-drugstore-boots-cuts-ties-with-major-palm-oil-producer/?utm\\_source=POLITICO.EU&utm\\_campaign=6654f793d9-EMAIL\\_CAMPAIGN\\_2018\\_01\\_16&utm\\_medium=email&utm\\_term=0\\_10959edeb5-6654f793d9-189962025](https://www.politico.eu/pro/uk-drugstore-boots-cuts-ties-with-major-palm-oil-producer/?utm_source=POLITICO.EU&utm_campaign=6654f793d9-EMAIL_CAMPAIGN_2018_01_16&utm_medium=email&utm_term=0_10959edeb5-6654f793d9-189962025)
115. 삼성물산 홈페이지 [http://trading.samsungcnt.com/KR/trading/bz/205000/data.do?area\\_id=14&domain\\_id=4#none](http://trading.samsungcnt.com/KR/trading/bz/205000/data.do?area_id=14&domain_id=4#none)
116. 뉴스원, “포스코대우, 인니서 팜오일 양산 돌입... “2030년 연 17만톤 목표” (2017. 3. 2), <http://news1.kr/articles/?2925738>
117.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 70-71
118.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 67-75
119.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 75-76
120.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63-67
121.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77-78
122.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83-84
123. 기업인권네트워크, 위 보고서, pp96-100
124. 삼성물산,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6. 12. 18)
125. 삼성물산,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6. 12. 18)
126. 삼성물산,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6. 12. 18)
127.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Anatomy of an Indonesian Oil Palm Conflict” (2016. 8. 31), pp. 6-8
128.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위 보고서, p.20
129.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위 보고서, p21
130.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위 보고서, p.19
131.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위 보고서, p.18
132.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위 보고서, p.18-19
133. 비즈니스위치, “LG상사, 팜오일 사업 배로 확대...인니 농장 2곳 인수” (2018. 11. 15)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8/11/15/0012>
134. Radar Indonesia News, “Kesal Tak Disupport Pemkab Warga Semadu Lapor Polisi” (2015. 3. 16) <http://www.radarindonesianews.com/2015/04/kesal-tak-disupport-pemkab-warga-semadu.html>
135. Radar Indonesia News, “Lima Warga Dipolisikan Karena Panen TBS Dewan Kecam Sikap PT. Parna Agro Mas” (2015. 6. 17), <http://www.radarindonesianews.com/2015/06/lima-warga-dipolisikan-karena-panen-tbs.html>
136. Tribun Sekadau “BLH Sekadau Uji Limbah PT Parna Agro Mas” (2-16. 4. 15) <http://pontianak.tribunnews.com/2016/04/15/blh-sekadau-uji-limbah-pt-parna-agro-mas>
137. <http://www.fao.org/faostat/en/#data/TP>
138. <https://www.indexmundi.com/agriculture/?country=kr&commodity=palm-oil&graph=imports>; 2016년 이후로 팜유는 대두유를 제치고 식용유지 수입량 1위를 차지하는 유지가 된다.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Edible Oil Market Brief - Palm and Soy Oils Lead the Way (2018. 1. 17) 참조
139.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 팜유류 - 조유(1511100000), 팜 올레인(1511901000), 팜 스테아린(1511902000), 기타(1511909000), 팜핵유(1513211000), 팜유와 그 분획물(1516202020)
140.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팜유(팜유·팜핵유·팜올레인유·팜스테아린유)는 3,500 톤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값싼 식탁, 비싼 대기] 팜오일과 맞바꾼 열대우림 동물은 멸종, 사람은 호흡기 질환” (2017. 9. 20),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9714> 참조). FAO 자료와 비교했을 때 무려 135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 차이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하였는데, 식약처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답변을 하였다.

141.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말레이시아	187,097,054.00	135,064,326.00	192,549,908.00	214,175,195.00	252,432,500.00	176,458,059.00	257,724,015.00	217,415,871.00	262,082,417.00	310,072,644.00	289,366,050.00	298,536,045.00
인도네시아	4,943,986.00	3,364,990.00	10,492,768.00	14,233,435.00	787,257.00	954,072.00	23,727,782.00	19,036,998.00	30,046,396.00	37,092,349.00	37,930,615.00	39,274,654.00
기타 국가	3,327,393.00	4,796,523.00	1,053,923.00	2,325,420.00	1,624,515.00	3,012,723.00	877,626.00	2,445,900.00	1,228,549.00	3,415,029.00	708,228.00	2,279,984.00
총계	195,368,433.00	143,225,839.00	204,096,599.00	230,734,050.00	254,844,272.00	180,424,854.00	282,329,423.00	238,898,769.00	293,357,362.00	350,580,022.00	328,004,893.00	340,090,683.00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말레이시아	293,508,372.00	239,903,511.00	285,981,015.00	239,335,207.00	297,003,469.00	190,897,330.00	262,092,494.72	168,492,018.00	270,041,311.37	194,374,993.00	246,339,449.54	163,758,052.00
인도네시아	41,652,336.00	33,008,818.00	146,363,635.00	118,525,974.00	151,689,325.00	88,213,066.00	211,755,657.57	134,489,806.00	239,037,794.83	164,754,799.00	357,784,011.48	224,079,951.00
기타 국가	1,225,325.00	3,053,409.00	9,082,485.00	8,968,163.00	2,449,050.00	4,175,935.00	1,367,046.65	5,041,218.00	1,142,009.19	4,367,640.00	2,824,284.20	4,256,736.00
총계	336,386,033.00	275,965,738.00	441,427,135.00	366,829,344.00	451,141,844.00	283,286,331.00	475,215,198.94	308,023,042.00	510,221,115.39	363,497,432.00	606,947,745.22	392,094,739.00

14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p.257

14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p.257

144. 바이오디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송용 경우에 의무적으로 혼합되는 바이오연료를 가리키며, 2018년에는 의무혼합비율이 3%로 상향 조정되었음.

145.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자료

146. 전세계 화장품의 70%가 팜유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The Guardian, "If the palm oil industry waited for consumers to care, sustainability would get nowhere" (2015. 10. 26)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oct/26/palm-oil-industry-consumer-understanding-sustainability-cspo-packaging-marks-spencer-boots-ecover> 참조

147.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4 April 2017 on palm oil and deforestation of rainforests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8-TA-2017-0098+0+DOC+XML+V0//EN>

148. CRC/C/KOR/CO/3-4, para 27.

149. E/C.12/KOR/CO/4, para 18.

15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용자) ①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조림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51.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형태로 지원.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 소요액의 70% 이내의 소요액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http://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152.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며,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음.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안내,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resource/resource\\_050202.html&mn=KFS\\_02\\_01\\_06\\_02\\_02](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resource/resource_050202.html&mn=KFS_02_01_06_02_02)

153.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해버렸으며, 국내식량자급률 전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팜유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포스코대우와 제이씨케이칼이 있다. 윤준호 의원실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산바라기 사업' 전략한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2018. 10. 10)

154. 2019년 2월 19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산림청에 2018년도 융자지원 기업에 대해 우선으로 문의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2015년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 2018년도 네덜란드 공격연금(ABP)으로부터 투자철회를 당한 포스코대우에 대해 2018년도에도 융자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55. 인도네시아 팜유사업 산림청 융자지원 내역 (2011 - 2016. 9) (김현권 의원실 제공)

재원년도	용자인	사업명	사업장주소	사업량(단위)	대출일자	대출금액
2011	대상홀딩스(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5,008(ha)	2011-08-23	4,524,000,000
2012	(주)LG상사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100(ha)	2012-06-14	957,000,000
2012	대상홀딩스(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2,823(ha)	2012-06-20	1,039,000,000
2012	대상홀딩스(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803(ha)	2012-12-21	406,000,000
2012	대상홀딩스(주)	가공시설(팜유가공)	인도네시아	1(식)	2012-12-21	430,000,000
2012	대상홀딩스(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803(ha)	2012-12-21	525,000,000
2013	한국남방개발(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2,710(ha)	2013-06-20	2,137,000,000
2013	제이씨케이칼(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800(ha)	2013-07-23	1,635,000,000
2013	(주)LG상사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500(ha)	2013-08-05	1,655,000,000
2013	제이씨케이칼(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1,230(ha)	2013-10-31	1,460,000,000
2013	제이씨케이칼(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800(ha)	2013-10-31	87,000,000
2014	제이씨케이칼(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	인도네시아	3,000(ha)	2014-10-15	4,509,000,000
2014	제이씨케이칼(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옥림	인도네시아	2,438(ha)	2014-10-15	918,000,000
2016	(주)엘지상사	팜유나무(옥림)	인도네시아	467(ha)	2016-07-14	297,000,000
2016	(주)엘지상사	팜유나무(옥림)	인도네시아	502(ha)	2016-07-14	451,000,000
2016	(주)엘지상사	팜유나무(옥림)	인도네시아	995(ha)	2016-07-14	867,000,000
2016	(주)엘지상사	팜유나무(옥림)	인도네시아	1,308(ha)	2016-07-14	937,000,000
2016	(주)엘지상사	팜유나무(옥림)	인도네시아	1,711(ha)	2016-07-14	1,284,000,000

15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제품 정보와 함께 원재료 또는 성분명과 각각의 배합비율에 대해 등록관청에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7. 환경운동연합, "네덜란드 공격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2018. 7. 3) <http://kfem.or.kr/?p=192739>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창립한 시민 환경단체로서 생명·평화·생태 참여 시민운동의 심장입니다. 8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51개 지역조직과 5개 전문기관 그리고 7개 협력기관이 활동하는 전국 환경운동의 네트워크이자, 세계 3대 환경단체의 하나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서 전 세계 200만 명의 세계시민들과 함께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화학제품 감시와 플라스틱 추방, 미세먼지 해결과 에너지 전환, 숲과 강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과 열대림 파괴 중단 활동을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듭니다.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어필의 꿈은 모든 사람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화해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Tel 82-2-735-7000

FAX 82-2-735-7020

E-mail web@kfem.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로 23

(종로구 누하동 251) 03039

<http://kfem.or.kr/>



**APIL**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센터 어필

Tel 82-2-3478-0529

FAX 82-2-3478-0527

E-mail info@apil.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안국동, 걸스카웃빌딩) 03060

[www.apil.or.kr](http://www.apil.or.kr)